

목양칼럼

내가 여기 있다

큰 아들이 섬기는 교회(Westgate Church) 담임목사님을 몇차례 뵈었는데 그 때마다 사려 깊음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가스 공사를 하는데 가스가 새어나와 그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마음 아파하시면서 가끔 이야기 하신답니다.

“내 아들이 죽어 갈 때 아빠를 불렀을 텐데... 내가 아무 것도 못해 주었네요.”

작은 아들이 치아가 안 좋아서 제가 언젠가 한 마디 했습니다.

“왜 이렇게 치아 관리를 못했니?”

아들도 스스로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가 아파 병원 가야할 때, 아빠가 안계셨는데요.”

그리고 보니 작은 아들이 한창 자라날 청소년 때에 제가 돌봐준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아빠를 힘들어 찾았을 때, 저는 언제나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 계시든 아니든

아버지 부재(fatherlessness) 현상은 이 땅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진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사58:9)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섭고, 슬프고, 아파서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면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대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펼치십니다.

휴가지에서의 밤은 깊어 갑니다.

끌어 안고 온 짐도 많고, 가서 펼쳐야 할 일도 많아 뒤척이다 일어났지만

“내가 여기 있다” 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모든 짐 몽땅 아버지께 맡기고, 저는 이제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용/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347)804-5366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학과목 (646)789-1118	
직인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송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터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8월 12일
제 44-32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송요한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43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이무근 장로 3부 / 김원도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누가복음 11:13	사회자
찬양 CHOIR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불같은 성령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한국 교회와 민족을 살린 평양 대부흥	박용규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85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부흥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삼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김수산 장로 4부 / 최원일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85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누가복음 11: 13	사회자
찬양 CHOIR	성령의 능력 불같은 성령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한국 교회와 민족을 살린 평양 대부흥	박용규 목사
* 찬송 HYMN	부흥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새가족 환영회

6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제 3회 Summer Music Camp

* 8/21~24(화~금)

* 문의: 최효진 권사, 영미 라티몰 집사

할렘 단기 선교

8/28(화)

수요 기도 예배

오후 8:00 (8/15/18) 사회: 김재형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광고 사회자

성경봉독 사회자

시편 124:1-8

말씀 김재형 목사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찬송 383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김재형 목사

교회소식

8월 사랑의 달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8/16~18(목~토) 청년 연합 여름 수련회 8/21~24(화~금) 제 3회 Summer Music Camp

8/28(화) 할렘 단기 선교 8/29(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9/2(주) 월례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이취임식 9/5(수) 지도원 성경 공부

알림

-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용규 목사님(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QBC는 전체 여름 특강으로 지하 친교실에서 오후 2:15~3:15까지 진행됩니다.
* 주제: 밀알의 삶 * 강사: 전성호 전도사
- PTA총회 안내 * 유년부: 오늘 오전 11:30 유년부 예배실
* 초등부: 오늘 오후 1:30~2:00 초등부 예배실
- 단기 선교사 파송 지역: 할렘 (8/28) * 단기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렘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8/18(토) 새벽 예배 후 7:20, 209호실에서 있습니다.
* 대상: 40, 50대 남녀 선교회장단
- 2018 청년 연합 여름 수련회 안내 1) 일시: 8/16~18(목~토) 2) 주제: Radical (David Platt)
3) 장소: Liebenzel Retreat Center 4) 강사: 조상명 목사
- 제 3회 Summer Music Camp 안내 1) 일시: 8/21~24(화~금), 오전 9:00~오후 3:00
2) 장소: 퀸즈장로교회 3) 오케스트라와 합창 중 택일 4) 문의: 최효진 권사, 영미 라티몰 집사
- 열린유아원 가을학기 개강 안내 1) 대상: 만 18개월(8/31기준)~3세까지
2) 등록: *본교회 교인 자녀: 9월 첫 주까지 각 부서 통해 *외부: 9/11(화) 오전 10:00 선착순 40명
3) 개강: 9/13(목) 오전 10:00, 유아부실 4) 문의: 이명옥 전도사 646)327-6438
- 한국학교 가을학기 개강 안내 1) 대상: Pre K-12학년 2) 개강: 9/15(토) 오전 9:30
3) 등록: 8/18~9/8 오전 10:00~오후 2:00 (한국학교 사무실) *가을 학기에는 모든 학생이 등록해야 합니다.
4) 문의: 함미희 전도사, 김홍덕 권사 (718-886-4646) * 한글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 8/18(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시온 찬양대 (다음주: 임마누엘 찬양대)
- 가족기념 장학기금 이정심 권사, 김하영 청년

새가족

백영옥 (사라 2F8) 박강성 (아골라 2F13) 박소란 (청장년 4WH1)

김석주 (청장년 3FM2, 김사라 - 청장년)

교우소식

병 환 장기복 권사 (1F8)께서 취장 절제 수술 후 LJ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편춘자 권사 (3BSJ)께서 수술 후LJ CT ICU에 입원중입니다.

소 천 신운영 집사 (신기만 집사 4LI2) 의 부친 정중수 교우께서 8/6(월) 소천 받으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

월 / 임경순 고은비 황의성

수 / 박경미 최효진 황의성 황선영

금 / 김남경 최효진 황선영

주 / 윤혜진 강지영 차동미

화 / 이승조 윤혜진 황선영 이혜진

목 / 신예지 최효진 황선영 이혜진

토 / 김남경 최효진 황선영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302	러시아어 예배	29	영어부	33	중등부	65
2부 예배	392	청년 선교부	84	유아부	26	고등부	56
3부 예배	325	QBC	203	유치부	34	청년 대학부	28
4부 예배	163	새벽 예배	988	중국어 교육부	22	교회 학교 예배	411
영어 예배	182	수요 기도 예배	176	유년부	82	주일 낮 장년 예배	1796
중국어 예배	319	새가족 환영회	21	초등부	65	주일 낮 총계	2207

8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남형욱 장로

헌신기도	정길표 장로	송동윤 장로	차상남 장로	함용식 장로
책임권사	차동미 권사	최은숙 권사	김희은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동순	이정훈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장지숙 정민영 허민정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김미권 전용력 전인자 송명남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박석미 한원희 허민정 심화숙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다비다/갈렙 주일식사: 청장년부(다음주: 마리아)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렙(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금주의 가정예배

2018년 8월 둘째 주

제 54 문 :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전 인류로부터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도록 선택되어 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자신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며 보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언제까지나 그 일원으로 남을 것입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9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8:48-53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조상보다 작은 자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보고 아서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작은 자로, 믿을 수 없는 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은혜가 많으신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잊어버리지 맙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542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8:54-59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십 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고,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우리라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본적도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543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9:1-3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맙시다. 아픈 일들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고난이 그저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나타내시려 함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 함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을 더 깊이 알고 따라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낙심 대신 인내와 소망의 충만함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 찬송가 84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9:4-7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둡게 됩니다.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취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밝은 눈이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함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닮아 가는 삶을 삽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85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9:8-12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지 맙시다. 이들은 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아팠는지 슬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생각하며 삽시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도 목적이 있다고 하시며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만져 주시며 아픈 곳을 낫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 찬송가 9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 요한복음 9:13-16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경 된 자가 맹인이 된 표적이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낫게 된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음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맞는지 따지는 데 급급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